



#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 1 올해 1~2월 중국 경제 발전 6대 특징

-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2월 중국의 경제 발전은 예상치를 웃돌았으며 다음과 같은 6대 특징을 보였다고 밝힘
  - (생산·투자·시장 회복) 산업 부가가치가 7.5% 증가하여 12월 대비 3.2%p 상승하고 고정자산 투자가 12.2% 증가하여 2021년 증가율 대비 7.3%p 상승함. 소매판매액은 6.7% 성장하여 12월 대비 5%p 상승하였음
  -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 운행) CPI가 0.9%로 예상치 3%를 하회했고, 상품무역 흑자는 16.3% 증가했으며, 2월 말 외환보유액은 3.2조 달러 이상을 유지함
  - (첨단기술 산업 발전 양호, 스마트·저탄소 제품 생산 증가)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가 14.4% 증가하고 첨단기술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42.7% 증가함. 신에너지차, 산업용 로봇, 태양전지 생산량이 각각 150.5%, 29.6%, 26.4% 증가하였고,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은 12.3% 증가하여 전체 소매판매액의 22%를 차지함
  - (제조업과 IT 서비스업의 비교적 빠른 성장, 소비 업그레이드 가속화) 제조업 부가가치는 7.3% 증가하여 12월 대비 3.5%p 상승하였고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20.9% 증가함.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업의 생산지수가 16.3% 상승하였고 금·은·주얼리, 문화·사무용품 소매판매액은 각각 19.5%, 11.1% 증가하였음
  - (대외개방 효과 가시화) 화물 수출입은 13.3% 증가, 이 중 일대일로 국과와의 수출입이 18.3% 증가함. 일반무역 비중은 63.5%이고 민영기업 수출입은 전체의 48.2%를 차지함
  - (생필품 소비 증가, 식품가격 하락, 민생 분야 투자 증가) 소비재 산업 부가가치가 9.7% 증가하였고 식품, 일용품, 음료 소매판매액이 각각 7.9%, 10.7%, 11.4% 증가했으며 2월에는 식품 가격이 3.9% 하락하였음. 교육, 의료 등 민생분야 투자가 각각 19.8%, 29.3% 증가하였음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zqrb.cn/finance/hongguanjingji/2022-03-16/A1647362213943.html>

## 2 中, 2021년 공유경제 시장규모 9.2% 성장

- 중국 국가정보센터에서 발표한 '중국 공유경제 발전보고서(2022)'에 따르면 2021년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9.2% 성장한 3조 6,881억 위안(약 702조원)에 달했음

- 음식배달 수입이 전국 요식업 수입의 21.4%로 전년 대비 4.5%p 상승하였고 콜택시 고객이 전체 택시 고객의 31.9%에 달했으며, 공유숙박 수입이 전체 숙박업 수입의 5.9%로 집계됨
- 중국사회과학원 관계자는 공유경제는 발전 초기 부동산, 자동차 등의 사용권을 공유하면서 생활서비스, 공유자동차, 공유숙박 등 분야가 빠르게 발전했으며, 현재 생활서비스업에 대한 침투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음
- 2021년 공유 사무실, 생산력, 지식·기술 분야의 공유경제 발전이 비교적 빠르고 거래규모가 각각 26.2%, 14%, 13.2% 성장하였음

자료원 : 인민일보 해외판

[www.gov.cn/xinwen/2022-03/16/content\\_5679292.htm](http://www.gov.cn/xinwen/2022-03/16/content_5679292.htm)

### 3 中, 스마트 건축 분야 빠른 발전세

- 중국 주택건설부는 '14차 5개년 건축업 발전규획' 발표를 통해 스마트 건축 및 조립식 건물 관련 사업을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였음
- 주택건설부는 2021년 말 124건의 스마트 건축 신기술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 중에는 디지털 디자인 소프트웨어 혁신서비스 20건, 부품 스마트 생산라인 혁신서비스 29건, 스마트 시공관리 시스템 혁신서비스 42건, 건축 산업인터넷 플랫폼 혁신서비스 20건, 건축용 로봇 등 스마트 제조설비 혁신서비스 13건이 포함됨. 예로 중건3국(中建三局)의 초고층 주택 시공장비 플랫폼(住宅造楼机), 메이디부동산(美的置业)의 '스마트 조립식 건설정보모델링(BIM) 플랫폼' 등임
- 2021년 스마트 건축 관련 투자를 받은 기업은 14개사 이상이며, 즈허커지(智鹤科技), 샤오쿠커지(小库科技), 다제로봇(大界机器人), 페이두커지(飞渡科技) 등이 각각 1억 위안 이상의 투자를 받았고 투자에 참여한 회사는 비구이위안벤처투자(碧桂园创投), 바오리카피탈(保利资本), 진디그룹(金地集团) 등으로 나타남
- 비구이위안(碧桂园)은 2018년에 건축용 로봇회사 광둥뵈즈린(博智林)을 설립했으며, 건축용 로봇 25종이 25개 성(省)의 350건의 프로젝트를 시공하였음. 사용한 로봇은 총 750대, 시공 면적은 700만 평방미터임. 현재 연구개발 중인 건축용 로봇도 50여종이며, 대부분은 콘크리트 및 조립식 건축 시공에 사용되는 로봇임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726893229379258138&wfr=spider&for=pc>

### 4 화웨이, 올해 스마트홈 점포 500개 오픈 예정

- 화웨이는 3월 16일자로 차세대 스마트홈 솔루션을 출시했으며 스마트홈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현재까지 스마트홈 오프라인 점포 50개를 오픈했고 올해 500개를 신규 오픈할 계획임
- 화웨이 운영체제 하모니OS에 입주한 브랜드는 1,900개 이상, 스마트홈 시스템과 연결된 제품은 4,500종 이상에 달함. 화웨이는 가전업체 뿐만 아니라 화룬부동산(华润置地), 중하이부동산(中海地产), 이지홈(居然之家) 등 실내 장식, 부동산 업체와도 협력 중임
- 화웨이의 스마트홈 솔루션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로 이번 출시한 스마트홈 솔루션 가격은 80평 방미터에 4만 위안(약 762만원)으로 전보다 평방미터당 500위안(약 9.5만원) 인하되었음

- 한편 중국 주택건설부는 '디지털 가정 산업 발전 가속화로 거주 품질 제고 관련 의견을 발표하여 2022년 말까지 디지털 가정 산업 정책제도 및 표준을 완비하고, 조건이 부합되는 지역은 적어도 한개 도시에서 디지털 가정 건설을 추진하여 보급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음
- 스마트홈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화웨이 외에도 ORVIBO(欧瑞博), UIOT(超级智慧家), Life Smart(行至云起), Haier smart home(海尔智家), Midea(美的), tuya(涂鸦智能) 등이 있음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2-03-17/A1647520574715.html>

## 5 中, 올해 알루미늄 가격 안정세 유지 전망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알루미늄 가격이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3월 17일 상하이 선물거래소의 알루미늄 최고가는 톤당 2만 2,250위안(약 423만원)으로 나타남
- 1~2월 중국의 알루미늄 생산량은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한 633만 톤이며, 비록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140만 톤의 생산시설을 재가동하였음. 윈난성 지역도 3월부터 연간 생산량 50만 톤의 생산시설이 가동에 들어갔으며, 광둥성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윈난성 생산업체들이 구매처를 찾기 시작했다고 전했음
- 중국내 일부 상장업체는 알루미늄 가격 상승, 신에너지차 수요 증가, 재활용 알루미늄 산업 발전 등으로 올해 실적이 2021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전망함
- 리중그룹(立中集团) 관계자는 해외 알루미늄 가격은 계속하여 상승하지만 중국은 공급 안정화 정책으로 톤당 2.1~2.2만 위안(약 399~418만원)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자료원 : 증권일보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2-03-17/A1647520574712.html>

## 6 中, 일부 도시 중고주택 시장 회복세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월 70개 주요도시 중 1선 도시의 신규 주택과 중고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하였고 2, 3선 도시는 전월과 비슷하거나 하락세를 보임. 1, 2선 도시의 주택 판매가는 전년 동기대비 상승폭이 둔화되고 3선 도시는 판매가가 전년 동기대비 하락하였음
- 3월부터 일부 도시의 중고주택 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으며 1선 도시 중고주택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함. 3월 7일부터 13일까지 베이징, 선전, 쑤저우, 난징, 샤먼, 닝보 등 10개 도시의 중고주택 거래량이 1만 3,208채로 전주 대비 11.2% 증가했고, 이 중 베이징시의 거래량이 4,329채에 달했음
- 2월 중고주택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3개 도시는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이며, 업계 관계자는 2022년 구정 이후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지원 정책을 출범하여 중고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음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203/202203171445161090.html>